

보도시점 2025. 9. 9.(화) 11:50 배포 2025. 9. 9.(화) 8:00

AI 대전환 이끌어 나갈 ‘기획재정부 AI 전사’ 육성한다

-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총 8회차 AI 교육과정 출범
-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정책업무 AI 활용력 제고
- 「AI 허브」·「AI 라운지」 구축 등 부내 AI 혁신 지속 추진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 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 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기획재정부 업무 특성상 AI 기술과 접목할 때 막대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며 “AI의

눈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면, 정책에 깊이를 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AI의 핵심인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정교한 패턴 분석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정확성을 한층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기획재정부 직원 한 명 한 명이 ‘AI 전사’로 거듭나 정부 전체, 나아가 국민의 삶에 AI 혁신을 이끌어 주기를 당부하면서, 구 부총리 자신도 주말을 활용해 녹화된 강의를 빠짐없이 챙겨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활용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체계적이고 실습 중심인 교육이 마련되어 반갑다”며 “KAIST AI 대학원과의 협력으로 전문가로부터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ChatGPT와 Perplexity를 업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플랫폼인 「AI 허브」를 정부부처 최초로 구축했고, 9월 중에는 AI 정보와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MOEF AI 라운지」를 신설하여 AI 학습 문화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도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리서치팀	책임자	팀 장	김남희 (044-215-2590)
		담당자	사무관	송지현 (sjh4711@korea.kr)